

(2020 환경거버넌스모임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모임명: 거마산 친구들

모임대표자 : 김인숙

모임참가자 : 권현주, 김경인, 김병순, 김순복,
김은영, 남정화, 이미남, 정주연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장 귀하

결과보고서

모임명	거마산친구들
사업기간	2020. 9. 24 ~ 11. 30
사업비	3,000,000원

■ 목적

- 양서류 서식지 환경조성 모범사례를 탐방하고 송내공원에 양서류가 잘 살 수 있는 방법 찾기
- 송내공원에 도롱뇽, 맹꽁이 등 양서류가 살고 있음을 홍보 할 수 있는 송내공원 지도 만들기
- 공원관리과 공무원과, 양서류와 수목관리 전문가, 시민이 함께 송내공원에 친환경적 관리 방법 찾기
- 전문가와 시민, 공무원이 함께 하는 송내공원 시민관리위원회 만들기

■ 사업제안 내용

1. 도롱뇽 서식처 선진지 견학
2. 양서류와 수목관리 전문가와의 만남
3. 도롱뇽 발자국 숲나들이
4. 설문조사
5. 송내공원 리플릿 만들기과 안내판 제작
6. 송내공원 양서류와 수목관리에 관한 정책제안
7. 송내공원 시민관리위원회 조성

■ 사업 집행 결과 보고 및 평가

1. 회의 및 모임

9차례의 회의와 모임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코로나19로 모임 장소를 정하는 것과 회원들이 대면으로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줌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실외에서도 회의를 하여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사업 진행기간 중 다행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가 되면서 사업 활동도 계획대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

2. 도롱뇽 서식처 선진지 견학

회원 3분의2이상이 참석하고 날씨도 쾌청해서 함께 견학을 하며 충분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1) 도롱뇽이 서식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가 잘 되어있다. ‘만삼이네 도롱뇽마을’은 입구부터 도롱뇽 벽화가 멋지게 그려져 있고, 방문을 환영하는 아치도 세워져 있다. 폭 2m정도 되는 안내판

에는 도롱뇽의 한 살이 과정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송내공원에도 이런 친절한 안내판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결과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안내판을 설치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2) 계곡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도롱뇽 서식처인 웅덩이가 잘 보호되어 있다. 사람들의 노력과 손길이 닿아야 양서류가 살아가는데 안정감을 주는 도시의 환경이 안타깝지만 사람의 이런 보살핌과 노력이 도롱뇽 서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만삼이네 도롱뇽 마을’은 사람의 손길과 자연적으로 형성된 환경이 조화를 잘 이뤄 도롱뇽에게 최상의 서식처가 되었다. 곳곳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웅덩이가 있고, 사람들의 손을 타지 않도록 만들어진 울타리가 도롱뇽을 보호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보였다. 송내공원은 공원으로 조성되기 전에는 양서류들이 스스로 잘 살다가 2년 전부터 환경 변화, 농약 살포와 사람들의 접근으로 위태로운 환경이 되었다 그래서 또한 지금은 사람의 도움이 절실하다. 양서류와 수목관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송내공원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 실천해 나가야겠다.



3. 양서류와 수목관리 전문가와의 만남

전문가의 실질적인 자문이 우리의 답답한 속을 뚫어 주었고,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송내공원을 바라보게 해 준 것 같아 만족스러웠다.

- 양서류

1) 우리의 지속적인 활동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라남용 박사의 ‘지역 전문가에서 시민 과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뇌리에 남는다. 단순히 모니터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쌓이고 그 데이터로 사실과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영리한 시민 과학자가 되어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사람과 양서류가 나아가 모든 생명들이 함께 공존하는 공원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

2)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었다.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송내공원의 양서류 서식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공원관리과에 제안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안을 넘어서서 도롱뇽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웅덩이 장소를 찾아준 것은 아주 고무적이다. 연화원에 생태통로를 만들어주는 방법도 현재 상태에서 가능성 있는 방법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 2021년 바로 진행하여 그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그 동안 가뭄이 들어 웅덩이에 물이 마르면 인위적인 방법으로 물 공급을 진행하였는데 그러한 노력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하지 않아도 양서류가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길 바란다.

- 수목관리

1) 병해충 발생 정밀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알려주었다. 거마산친구들과 행정이 ‘(가칭)송내공원관리 협의회’ 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병해충 발생시 병해충의 종류, 피해 정도, 확산 정도 등을 분석·평가 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관리 방법을 협의회 차원에서 결정해 나갈 것을 제안 해 주셨다. 관리 후 변화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진행된다면 효과가 클 것 같아 거마산친구들이 추후 에 논의를 통해 방법을 찾아볼 계획이다.

2) 시민, 공무원, 전문가가 함께 협력해야 변화발전을 원활하게 도모할 수 있다. 수목관리 자문 시간에 부천시 공원관리과 팀장님과 주무관, 송내공원 관리담당 부장님이 참여했다. 현장에서 정책 등 여러 제안을 함께 이야기를 해서 의미가 있었다. 공무원과 소통하는 것이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함께 모여 이야기하니 소통이 잘 되었고 정책 제안도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선입견을 버리고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야겠다.

3) 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자문위원이 제안한 생태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번에 ‘도롱뇽 발자국 숲나들이’ 를 통해 참여자들의 관심과 만족도도 높아 함께 고민하며 계획을 세워나가면 좋겠다.



4. 도롱뇽 발자국 숲나들이

4회 진행된 도롱뇽 발자국 숲나들이에 30명 정도 참여했다. 처음에는 송내공원의 도롱뇽 서식을 알리고 시민관리 위원회를 만드는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족 중심의 숲나들이를 계획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모집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마을의 아이들과도 진행했다. 계획보다 소수의 가족이 참여했으나 참여한 가족들의 만족도는 높았고, 마을의 아이들과의 숲나들이도 여러 명이 참석해 자연의 순환과 사람과 자연의 공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참석자 중 시민관리 위원회에 여러 명이 관심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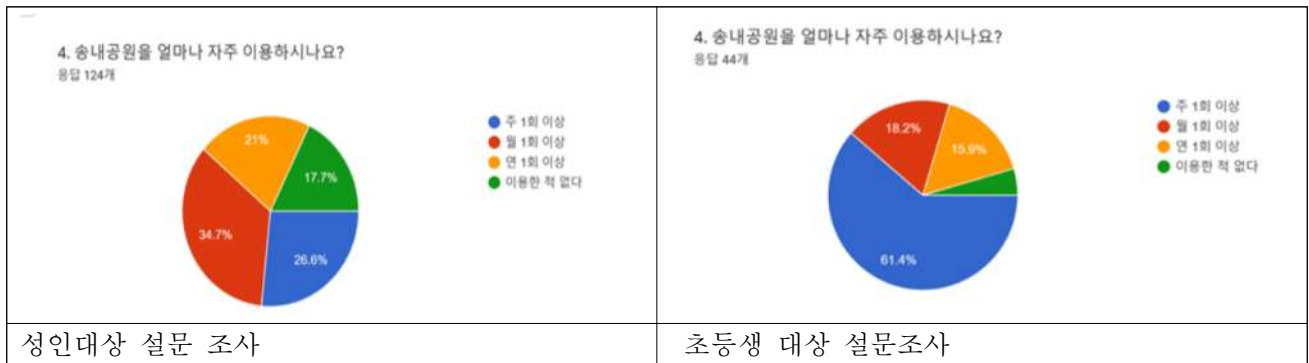
5. 설문조사

1) 대면과 비대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비대면으로만 진행되어 한계가 있었다. 설문조사를 거마산친구들이 올릴 수 있는 지역의 단체 중심으로 올려 다양한 계층의 폭 넓은 의견을 듣지 못한 것이다. 특별히 공원을 직접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대면 설문을 진행하고 싶었으나 코로나19로 실시하지 못했다. 송내공원은 마을과 인접해 있어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 그리고 바로 거마산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산행을 하러 부천 시민뿐만이 아니라 인근 인천 지역 사람들도 많이 찾아온다. 직접 찾아오는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2) 성인 124명과 어린이 44명이 설문에 응해 주셨다 지역주민이 바라는 송내공원의 모습을 알게 되었

다.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도롱뇽과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 ‘조금은 불편해도 자연이 그대로 유지되는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이 되면 좋겠다.’ ‘아이들이 자연 생태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유지되면 좋겠다.’ 등의 바람을 적어주었다.

3) 성인과 아동을 구분하여 실시해서 좋았다. 마을 아이들과의 숲나들이를 진행하며 초등학생들에게도 설문조사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실시했다. 조사 기간이 짧아 참여 아동은 적었지만 초등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인상적인 것은 공원을 이용하는 횟수가 성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송내공원이 친환경적으로 관리가 되어야함을 더욱 깊게 깨닫게 한다.



6. 송내공원 리플릿 만들기와 양서류 안내판 제작

송내공원 지도 만들기를 10월9일부터 시작하여 11월26일에 완성을 하였다.

1) 리플릿 기획과 디자인 등을 만드는 과정이 길고 어려웠다. 내용과 색상, 글씨체, 디자인 등 디자이너와 회원들의 의견을 수시로 점검하고 소통해야 했으며 수정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경험이 많지 않아 더 어려웠던 것 같다. 그리고 디자이너와 회원들의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어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도 여러 차례 진행되어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야 완성되었다.

2) 양서류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작성하려고 노력했다. 도롱뇽과 산개구리 생태를 사진과 설명글을 넣어 작성 하는데 관련 도서들의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많았다. 여러 권의 자료를 살펴보고 양서류 전문가의 조언도 들으면서 사실적인 자료를 작성하려고 했다. 결과적으로 양서류 공부를 자세하게 할 수 있었으며 내용도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3) 리플릿과 안내판에 사용한 사진이 모두 거마산 친구들이 찍은 사진이다. 그동안 모니터링을 하며 찍은 사진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 좋았다. 사진이 전문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들이 직접 찍은 것을 사용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4) 양서류 안내판을 설치하게 되어 홍보효과를 높였다. ‘만삼이네 도롱뇽 마을’을 견학하면서 양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판이 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나눴는데, 계획에는 없어 아쉬웠다. 그런데 거마산친구들이 코로나19로 모임 후에 식사를 하지 못한 덕분에 예산에 여유가 생기고, 주최 측의 융통성 있는 집행으로 양서류 안내판을 제작할 수 있었다

5) 도롱뇽이 사는 송내공원 지도 리플렛 활용방안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 되어 외부인 출입이 가능 해지면 우리마을에 있는 4개의 지역 아동센터와 중등 과정 까지 있는 대안 학교인 산학교와 산 방과후 , 그리고 산어린이집을 포함 한 어린이집 4곳에 지도를 설명과 함께 배포 할 계획이다. 코로나가 없어지면 공원에서 직접 배포하며 양

서류 보호활동을 넓혀 가고자 한다

우리마을에 9년제 어깨동무나눔장터를 매년 실시하고 있어 송내2마을 자치회등 20개 단체가 모여 있는 네트워크가 있어 코로나가 없어지면 송내공원 시민관리위원회 대면 모임도 할 계획이다



도롱뇽이 사는 송내공원 지도 리플렛 (1,000부 제작)



송내공원에 사는 양서류 안내판 설치 모습



우리마을에 사는 양서류 안내판 설치 모습

7. 송내공원 양서류와 수목관리에 관한 정책제안

수목관리 전문가가 자문하는 날 공원 관리과 2명과 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 제안이 용이하게 진행 되었다. 공원관리과에 제안한 내용이다.

1) 공원 내 계곡 중간과 잣나무 쉼터 옆 계곡에 새로운 웅덩이 2개를 조성한다.

현대아파트 106동 앞 계곡에 양서류 서식처 웅덩이를 새롭게 조성한다. 이곳은 계곡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바로 연결되어 있어 상시적으로 물이 고여 있을 수 있다. 가뭄 기간 동안에도 물이 잘 마르지 않는 곳이라 사람이 물을 대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측된다. 땅이 얼면 웅덩이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땅이 얼기 전에 조성한다.

2) 연화원 수직 벽에 양서류 이동 시설물을 설치한다.

산개구리들은 물이 고여 있는 곳 웅덩이 주변 바닥에서 추운 겨울을 보낸다. 봄이 오면 월동한 장소에서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는다. 현재 송내공원에서는 연못 연화원이 물이 상시적으로 고여 있는 곳이고 올봄에 많은 산개구리 알덩이가 관찰된 것으로 보아 이곳에서 산개구리들이 월동할 확률이 높다. 연화원에 양서류가 알을 낳고 알이 부화하고 성체가 되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생태통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3) 민원에 따라 수목 방제를 하기 보다는 방제 목적을 정확히 세우고 실시한다.

송내공원을 찾는 사람은 다양하다. 그만큼 방제에 대한 생각도 다양하다. 왜 방제를 하는지 어떻게 방제를 할 것인지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 몇 명의 민원으로 방역을 실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민원이 들어올 경우 시행하고 있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어야 한다.

4) 송내공원 방제하는 날을 거마산친구들과 공유한다.

방제하는 날을 미리 알고 수목모니터링을 실시해 양서류와 곤충이나 벌레 등 다양한 생물들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한다. 방역이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되고 그에 대한 대안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8. 송내공원 시민관리위원회 조성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어 송내공원 시민관리위원회 모임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다. 우리 거마산 친구들 회원 9명과 (권현주, 김경인, 김병순, 김순복, 김은영, 남정화, 이미남, 정주연) 마을사람 4명이 (박유순, 문정원, 이미숙, 김자영) 13명이 송내공원 시민관리위원회를 만들고 출범한다.

■ 마무리

코로나19 상황이었지만 무리없이 진행되었다. 처음 계획한대로 리플릿을 완성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역 주민들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자문위원을 통해 현 상황에서 송내공원의 발전 방법을 찾아 보았으며 개선 방법을 모색해 정책 제안도 진행했다. 수목관리 자문을 해 준 민성환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방제 전 후 수목 모니터링도 진행 할 계획이다 제대로 정책이 수행되어 양서류가 서식하는 최적의 공간이 되고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송내공원이 되길 기대해 본다.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에 감사로 드린다.